

환경문제와 관리

정 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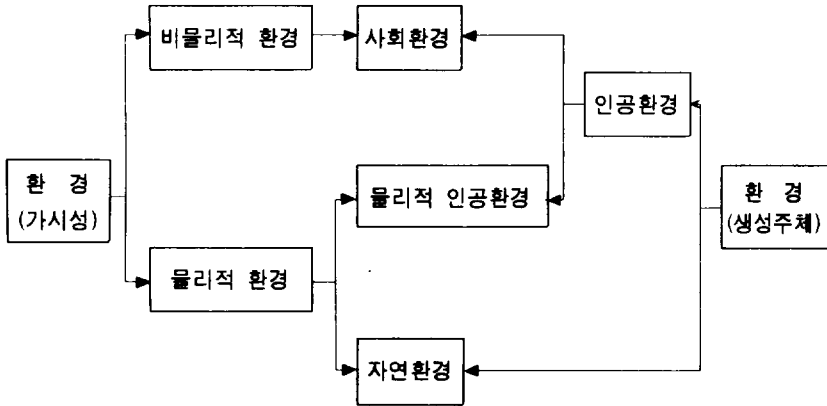
1. 환 경

모든 개념이 그러하듯이 환경도 환경 자체의 입장에서 보느냐, 아니면 인간의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환경은 적어도 인간의 입장에서 그 의미가 파악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환경문제를 범세계적으로 인류 공동의 문제로 중요시하고 문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환경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이기 때문이다.

인간을 주체로 한다 하더라도 주체의 규모를 개인으로 설정할 수도 있고, 지역사회, 나아가서는 전체 사회를 주체로 설정할 수 있다. 개인을 주체로 할 때 자연환경 뿐만 아니라 그 개인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 및 전체 사회, 나아가서는 전체 세계도 개인의 환경이 된다. 이처럼 인간을 주체로 할 때 환경이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인간 외부의 일체'를 뜻한다. 즉 환경은 인간이 배경으로 하여 살아가고 있는 자연뿐만 아니라 자연을 통해 나오는 여러 요소, 그리고 문화를 통해 인간이 만들어 낸 여러 요소 모두가 환경에 해당된다. 이처럼 환경 자체의 입장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환경의 의미를 파악할 때 설사 인간 외부에 존재하는 존재물이라도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적어도 인간에게는 환경으로서의 의미가 없다.

이처럼 인간을 중심으로 할 때 인간의 삶에 영향을 주는 환경은 가시성(可視性)과 창출의 인공성(人工性)이라는 두 가지 기준에 기초해 그 종류를 <그림 1>과 같이 거시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림 1> 환경의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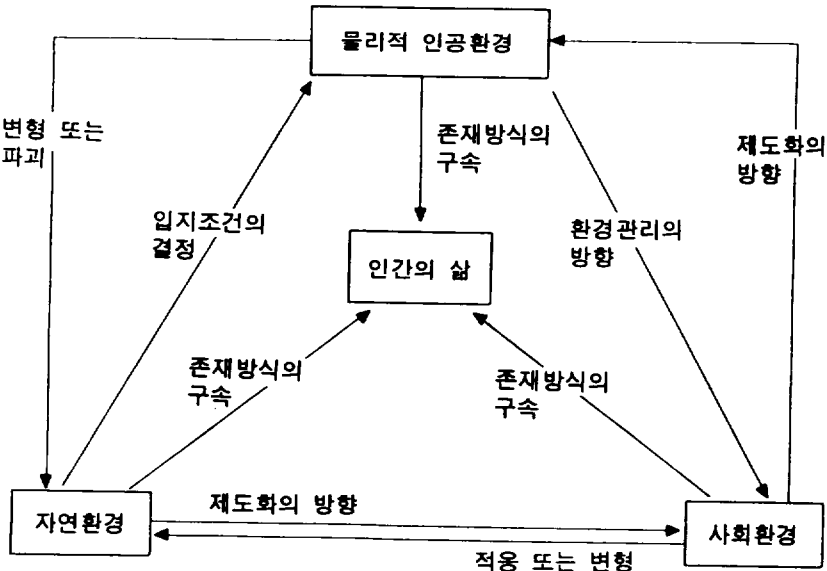


<그림 1>에서 물리적 환경(physical environment)이란 구체적인 형태가 있으면서 인간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주는 환경을 뜻하고, 비물리적 환경(non-physical environment)이란 구체적인 형태는 없지만 인간이 만든 것으로서 인간의 삶의 방식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환경을 뜻한다. 자연환경(natural environment)이란 공기, 물, 매장 광물, 지형, 토질 등과 같이 물리적 환경이면서 자연의 법칙에 의해 만들어진 환경을 뜻한다. 여기서 자연의 법칙이란 사실 또는 사물들 간의 필연적인 인과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원리를 뜻한다. 자연환경은 그 구성요소들 간의 균형과 조화를 본질로 하고 있고, 인간의 의식이나 행동과는 무관하게 그 자체로서 존재하며, 자신의 생성과 소멸에 관한 객관적 법칙에 따라 운동한다. 그리고 자연환경은 가격으로 환산될 수는 없지만 실질 소득이나 후생의 한 부분이다. 반면 물리적 인공환경(physical built-environment)이란 건축물, 도로, 항만 등 사회기반 시설 및 공장 등과 같이 인간의 편리를 위

해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지만 그것이 도리어 인간의 삶의 방식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환경을 뜻한다. 사회환경(social environment)이란 제도, 규범, 문화, 사회조직, 기술 등과 같이 인간사회의 질서와 능률을 증대시키기 위해 인간이 스스로 만들었지만 인간의 삶의 방식에 구속력을 행사하는 비물리적 환경이다. 따라서 인공환경(built-environment)이란 인간이 편리, 질서유지, 능률을 위해 만들어서 자신의 삶의 방식에 스스로 구속력을 행사하게 하는 일체의 외적 존재물을 뜻한다.

〈그림 1〉에서 환경의 주체는 결국 사회환경, 자연환경 및 물리적 인공환경이 그 핵심이다. 이 세 가지 구성요소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 맥락 속에서 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큰 메커니즘 속에서 존재하고 있다. 이것이 곧 환경체계이고, 그 메커니즘은 〈그림 2〉와 같이 도식화될 수 있다.

〈그림 2〉 환경체계의 메커니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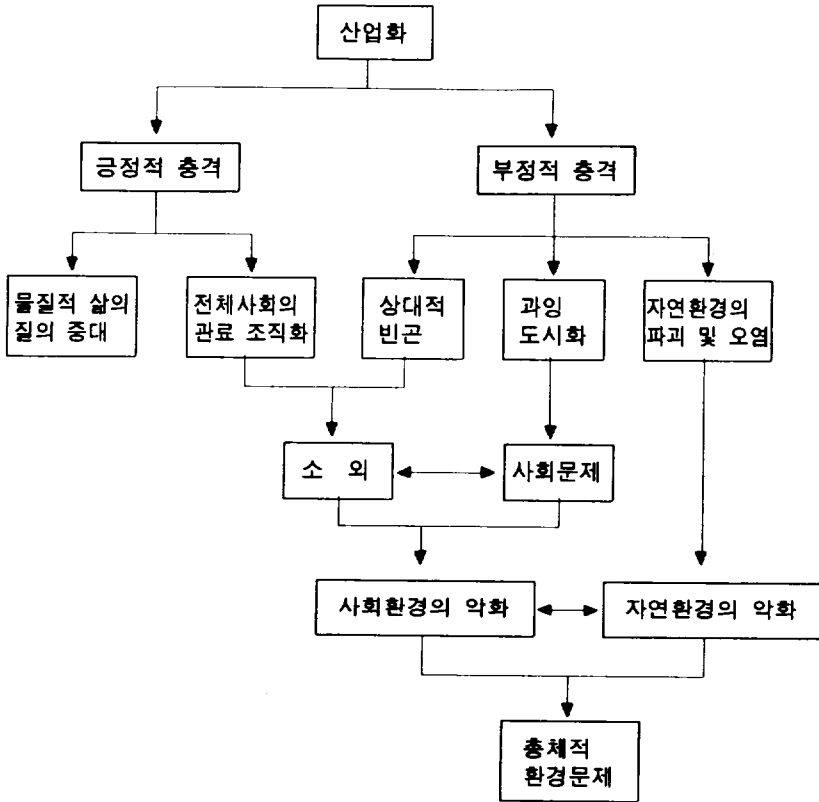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은 서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동시에 인간의 삶의 방식에 영향을 준다. 이 때문에 환경의 위기는 곧 인간의 위기이기에 환경은 그것이 자연환경이거나 사회환경이거나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2. 환경문제 발생의 진원지

인류의 문명사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이행되고 있다. 각 단계의 사회는 서로 다른 구성원리와 발전가치에 기초하고 있다. 예컨대 농업사회는 생산성을 토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면이 자아실현과 사회발전을 위한 최고의 발전가치였다. 산업사회에서는 기술이 생산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 기술 습득이 최고의 발전가치이고, 미래의 정보화 사회에서는 정보 이용능력이 최고의 발전가치로 될 것으로 예견된다.

환경문제는 이러한 인류 문명사의 과정 속에서 발생하였다. 환경문제의 발생 원인에 관해서는 인간과 자연의 관계에서 인간을 자연의 일부라는 관념보다는 자연과는 별개의 존재로 보고 인간의 풍요를 위해 자연을 극복의 대상으로 보는 관념, 적정 인구를 초과한 과잉인구, 경제성장, 오염을 유발시키는 생산기술 등 다양한 이론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원인들은 결국 산업화의 과정 또는 산업화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환경문제의 원초적 진원지는 산업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산업화는 인간의 삶에 긍정적 영향도 있지만 부정적 영향도 있다. 산업화에서 환경문제가 발생하는 과정을 거시적으로 도식화하면 〈그림 3〉과 같다.

〈그림 3〉 환경문제의 발생의 메커니즘



〈그림 1〉과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 발생의 진원지는 인간이 삶의 편리성과 능률성을 추구하기 위해 이룩한 산업화이기에 인간은 산업화의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이다. 그리고 환경은 자연환경이 그 전부가 아니며, 환경문제 또한 자연환경의 문제가 그 전부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환경문제는 자연환경 문제에만 국한시키는 어리석음에 빠져 있다. 환경사회학에서는 현대 후기 산업사회를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을 포함한 총체적 환경문제의 차원에서 위험사회(risk society)라고 규정하고 있다.

3. 제주도의 환경문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농업사회에서는 기술의 수준이 낮아 예컨대 전화, 자동차 등이 없었기 때문에 삶의 편리성은 낮았다. 그러나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은 쾌적하였다. 반면 산업사회에서는 편리성은 증가되었지만 쾌적성은 감소되었다. 이렇게 보면 사회발전과 환경은 태초부터 모순 관계였는지도 모른다. 이 모순과 관련하여 환경문제 해결에 대해 다양한 입장들이 제시되고 있는데 크게 두 가지 입장으로 요약된다. 하나는 비관론이고, 다른 하나는 낙관론이다.

비관론은 인구, 에너지, 식량, 오염 등 뿐만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측면에서 사회발전의 한계를 제기하면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후진국은 산업화를 중지하고, 선진국은 성장을 중지해야 하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는 성장을 통해서보다는 국제적 재분배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낙관론은 비관론이 주장하고 있는 한계는 자본의 재투자과 기술혁신에 기초한 사회발전을 통해 극복이 가능하다고 보고,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 격차는 오히려 후진국 발전의 동력(動力)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비관론은 환경우선론적 관점에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나 사회조직의 체계를 전환시키자는 입장이고, 낙관론은 성장 우선론적 관점에서 환경문제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여 이를 통제하는 방식을 개발하자는 입장이다. 이 두 입장을 절충하는 즉, 환경문제 해결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지는 이념적 방향이 곧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environmentally sound and sustainable development)'이고, 이 이념이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인류의 발전가치로 채택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부터 산업화 정책의 과정 속에서 자연환경을

과괴·황폐시켰고, 대량 생산 및 대량 소비 과정에서 자연환경이 극도의 오염에 도달하였다. 산업화의 결과 삶의 편리성은 증가되었지만 상호 친밀하던 농업사회에서의 인간관계는 기계적 관계로 변하여 이웃도 못 믿는 소외 현상이 일어나고, 또한 각종 범죄의 증가 등 사회환경의 쾌적성도 감소하였다. 제주도도 1960년대부터 산업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삶의 편리성은 증대되었지만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적으로 쾌적성은 감소되고 있다. 다행히 제주도의 산업화 과정은 2차 산업보다는 3차 산업 중심이어서 육지부의 다른 도시들보다는 편리성은 높지 않지만 쾌적성의 정도는 높다. 그러나 과거보다는 쾌적성이 열악한 상태로 향하고 있다. 이것은 다음의 사실들을 통해 증명이 가능하다.

첫째; 1인당 GDP, 전화 보급률, TV 등 각종 가전 제품의 보급률, 자동차 보급률, 의료시설 보급률, 정보 통신 보급률 등 각종 사회지표들의 증가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삶의 편리성이 얼마나 증대하였는가를 알 수 있다.

둘째; 대기질, 하천, 지하수, 폐기물, 소음 등 자연환경을 구성하는 요소들의 열악화의 과정을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자연환경의 쾌적성이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셋째; 범죄율, 교통사고, 작업장 사고, 인구의 조밀성, 사회적 기능들의 집중성 등 삶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각종 사회지표들의 증가를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사회환경의 쾌적성이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넷째;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의 인간관계에서 느끼는 소외감, 스트레스, 상대적 박탈감 등을 측정하여 시기별로 비교해 보면 사회환경의 쾌적성이 얼마나 감소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다.

환경의 의미, 환경문제 발생의 진원지, 환경문제를 보는 시각 등

지금까지 논의한 이러한 맥락 속에서 앞으로 제주도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관리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 이념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제주도는 다른 지역보다 환경관리에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관심은 자연환경에 한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에서 본 바와 같이 환경은 자연환경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환경도 존재한다. 그러므로 앞으로 환경관리 문제는 사회환경까지 포함하여 더욱 포괄적 차원에서 정책이 정립되어야 한다. 이 사실은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의 주체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하나의 큰 메커니즘 속에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둘째; <그림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의 의미는 환경 그 자체보다는 인간의 입장에서 파악되어야 하고, 인간의 삶의 문제와 관련지어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 때문에 환경의 위기가 곧 인간의 위기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환경의 위기는 인간과는 무관하기에 우리가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환경문제를 이처럼 문제시 할 가치가 없다. 때문에 제주도의 환경관리는 항상 제주인의 삶의 문제와 연관적 맥락 속에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환경문제는 그것이 자연환경이거나 사회환경이거나 발생의 진원지는 산업화이다. 산업화 가운데도 특히 2차 산업이다. 따라서 제주도의 입지 조건 및 유통의 사회적 측면에서 2차 산업의 육성이 적합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하더라도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보전 측면에서 2차 산업의 육성은 바람직하지 않다.

넷째; 그렇다고 3차 산업이 환경문제를 유발시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위락시설의 개발 등은 개발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훼손

시키고, 개발 후에는 그 위락시설의 이용 과정에서 자연환경을 훼손 시킬뿐만 아니라 사회환경도 열악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자본주의 시장기제의 원리 때문이다.

다섯째: 따라서 제주도의 환경관리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의 지표들을 선정하고, 제주도가 그 지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을 측정하여, 각 지표의 목표치와 기준치를 결정함으로써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할 때 삶의 편리성에 기초하여 자연환경 및 사회환경적으로 적어도 현재 상태보다 더 이상 쾌적성이 감소되는 것을 최대로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곧 오늘날 범세계적으로 인류 공동의 문제로 채택되고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하면서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길일 것이다.